



전주시는 1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평생학습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중장기 평생학습 청사진 마련

### 전주시,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고

#### 생애주기 학습체계 구축 등 6대 목표 제시

전주시가 시민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룰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 중장기 평생학습 청사진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18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평생학습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5일 착수를 시작으로, 9월 27일 중간보고회, 10월13일 관계자 심의회의를 거쳐 마무리된 이번 최종보고회는 김승수 시장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평생학습 관련 공무원 등 25여명이 참석해 시민 중심으로 발전하는 평생학습도시 전주시를 한 단계 도약시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권인택 전북대학교 교수는 오는 2023년까지 적용할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평생학습도시 전주시'를 제시했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생애주기 학습체계 구축' '소통과 나눔의 시민사회 조성' '평생학습전문 지도자 양성' '△학습경제형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시스템의 체계화' '△모니터링 평가' 환

류시스템화의 6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생애주기 학습체계 구축의 경우 시는 △다정다감 가족애(애) 문화학교 △100세 시대 新(신)년년 생애학교, 전주희망학교 등 아동·청소년 교육협의회의 위원, 평생학습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또 △우리동 평생학습센터 시민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시민인문교양대학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및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부처 지원 사업 활성화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유치 및 평생학습한마당 개최 등을 통해 소통과 나눔의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평생학습 인적자원 양성 및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체계화 △평생학습패실 리더십 양성 △강사인재 양성 및 강사화 교육 운영의 전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학습경제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형 평생학습 일자리 프로그램과 전주 체험관광 평생학습 마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한편, 평생학습 공유 경제 지도자도 양성하기로 했다. 또, 신중년 평생교육 시니어 봉사단을 조직해 활동할 계획이 다.

이외에도 시는 △평생학습 추진 전담기구 지속기관화 또는 법인화 △유비쿼터스 행복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고도화 △평생학습정보 일원화 및 확산 △평생학습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시스템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시정방향을 걸 맞는 미래지향적 평생학습을 구현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연구용역을 맡은 권인택 전북대학교 교수팀은 전주시의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전주시 평생학습 요구 조사결과 △평생학습 미래비전 및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도출 △향후 실천 과제별 추진내용 수립 △연차별 추진계획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균형 있는 전주시 평생학습의 비전을 제시하고 5개년의 전략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커가는 시점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이 개발되고, 전주시역 현실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가 구축돼 모든 시민이 효과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태평 아이파크 당첨자 서류제출·계약기간 동안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12월 5일까지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및 '태평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되는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계약 기간에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통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뺨뺨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

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구·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뺨뺨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의 경

우 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배회근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관련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식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의회, 전통시장 사진

#### 글짓기 작품전시회 개최

전주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단장 박광철)은 18일부터 22일까지 전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전통시장을 주제로 하는 사진 및 글짓기 수상작 작품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정겨운 전주 전통시장의 모습을 알리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시회에는 전주시 전통시장의 다양한 모습과 느낌을 담은 사진 41점과 글짓기 24점의 당선작이 전시된다.

전주시의회 박병을 의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주시의회가 시민들이



전주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은 전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전통시장을 주제로 하는 사진 및 글짓기 수상작 작품 전시회를 연다.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문화 휴식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의회, 시민을 행복하게 하

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장애인 미술작품, 전주 관광 사진 전국공모전 작품 등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회 로비에 대형 멀티비전과 독도 영상관 등을 두루 갖춘 디지털 홍보관을 개장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열정의 예술가, 일일 전주시장 되다

### 시, 공연기획자 정상현씨 위촉 성평등전주 방문 등 일정 소화

전주시는 18일 오랫동안 지역청년 예술가로 활동해온 정상현 씨(47, 다가동)를 제13대 일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정 일일 명예시장은 △뮤직페스티벌 '메이드 인 전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실험하는 '스테이 풀리쉬(STAY FOOLISH) 축제' 등 다수의 지역음악축제를 기획한 공연기획자이자 인디밴드 공연 및 음반 제작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로 이날 일일 명예시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특히 그는 이날 지역예술을 살리고 문화예술 향유 및 확산의 일환으로 자신이 직접 전주시에 제안했던 '종합티켓판매소'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보완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0월 새롭게 개관한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성평등전주 커먼즈필드'를 방문해 문화예술로 재생중인 서노송예술촌의 현황을 살폈다.

이외에도 정 일일 명예시장은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인 '덕진체육공



정상현

놀이터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한 예술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방문을 끝으로 일일 시장으로서 모든 임정을 마쳤다.

정상현 일일 명예시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소 관심 있었던 전주시의 문화예술정책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문화예술도시 전주시의 발전을 기대하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수행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 '행복 전파기업' 비나텍

#### 9년째 사랑의김장김치 전달

전주시 팔복동에 소재한 비나텍(대표 성도경)은 18일,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은 김장김치 10kg 220박스(상당)를 덕진구(구청장 김중업)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비나텍(주)은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슈퍼커패시터) 제조업체로 사람 중심의 함께 사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직원들 급여의 1%를 기부하며,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세우고 2011년 전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부터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김장김치 봉사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6일에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배추 1000포기에 정성껏 양념을 발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김치를 담그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김윤상 기자



### 중화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성남 은행2동 등 선진지 견학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동장 김수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은중수)는 회원 및 직원 20명과 함께 지난 18일 성남시 은행2동행정복지센터와 어울림돌봄노인주간복지주택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위원들의 역량강화 및 성남시 '아리움' 돌봄노인 주거복지주택의 돌봄 사례를 보고, 전주시 지역 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비교하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의 은행2동행정복지센터는 민관협력체를 통한 지역의 인적·물적 안전망체계를 구축하는 '사리누늑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리움'은 아름다운 우리들의 행복한 보금자리인 돌봄노인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돌봄노인복지주택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상 기자

## 전주월드컵골프장, 겨울철 단축 운영

### 내달부터 3개월간 첫 티업 오전 5시·마지막 오후 7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정성환)은 겨울철을 맞아 전주월드컵골프장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예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새벽과 야간 시간에 이용률이 감소하는 시기다. 공단은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첫 티업 시간을 오전 4시 41분에서 오전 5시 30분으로, 마지막 티업 시간을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로 앞당겼다. 또 새벽과 야간 시간대 이용이 거의 없는 휴간기에는 운영시간을 더욱 단축하는 등 예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은 도심 인근에 위치한 9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이용료도 저렴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성환 이사장은 "겨울철을 맞아 월드컵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한 라운딩을 위해 시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최상의 잔디상태로 이용객 성원에 보답하는 등 도심 속 골프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서윤근,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 쓰레기처리 문제 해결 대안은?

### 전주시의회, 시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 놓고 토론회 개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서윤근(우아 1·2동, 호성동),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이 전주시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함께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최용섭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부장은 "플라즈마 폐기물처리 연구이력 및 현황"을 중심으로 플라즈마 소각 기본개념과 사업과 사례, 경제성 분석, 소각로 구조 등을 객관적 실험 보고서를 통해 설명하고, 스토커 소각로와 열분해 용융소각로 운영 현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통해 플라즈마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플라즈마 소각처리 시범사업과 상용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단체 입장에서 플라즈마 소각시설의 기술력 확보, 상용화의 가능성 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전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당면한 문제를 현소각시설 사용종료 이후 대체 상용화 시설로의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18일 오후 6시 경 완주의 모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통장을 출진 뒤 4회에 걸쳐 25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상 기자

### 완산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최근 완산 자율방범연합회 회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원 간 화합과 시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돼 완산 자율방범대 우수지대 시상식 및 결의문 낭독 등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조용식 청장은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를 해 온 자율방범대를 격려하고 우수 자율방범 회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더불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완산을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민·경 협력찬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다운 기자

### 화물차 연료통 경유 홈치다 덜미

전주익산경찰서는 40만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한 혐의로 A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에 익산의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 연료통에서 15만원 상당의 경유 100L를 2차례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정다운 기자

### 통장출처 현금 인출 50대 검거

전주원주경찰서는 통장을 절도한 혐의로 A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월 2일 오후 6시 경 완주의 모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통장을 출진 뒤 4회에 걸쳐 25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상 기자